

2015년 서울시 9급 공무원 국어해설

9급 스파르타지옥훈련 국·영·史300캠프

▶ 국어 최정

대다수 국어를 처음부터 문법영역만 강조하여 집중적인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어를 잘해야만 영어를 잘 한다'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글의 분석능력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하며,
이해와 암기를 해야 하는 문법파트와 문학의 학습까지
스파르타 지옥훈련 국·영·史300캠프에서 탄탄한 국어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가장 빠르게 공무원 국어과목이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며, 매일 시험을 통하여 철저한 학습지도를 할 것입니다.



담당 교수 : 최정

수험생 여러분 메르스의 공포 속에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지방직 시험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용기, 여러분들만의 것입니다.

* 영역별 문항 수

영역	세부영역	문항 수
문법 (14)	어문규정	맞춤법, 표준어 (2) 띄어쓰기 (1) 외래어 표기(1)
	이론문법	국어 일반(1) 음운론(1) 형태론(1)
	고전문법	한글의 제자 원리(1)
	어휘 한자	사자 성어(2) 속담(1) 다의어(1) 고유어(1) 한자 표기(1)
독서 (3)	비문학	문단 배열(1) 글의 구조(1) 서술 방식(1)
문학 (3)	현대	현대 시(1) 문학사(1)
	고전	고시조(1)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덩쿨 - 눈두덩이 - 놀이감
- ② 윗어른 - 호루라기 - 탄지
- ③ 계면쩍다 - 지리하다 - 빠지다
- ④ 주책 - 두루뭇술하다 - 허드레

[정답] ④

[해설] ④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뜻한다. 한자어 ‘주착(主着)’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주책’의 경우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비하의 뜻이 있는 ‘주책없다’는 ‘일정한 잣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는 뜻의 표준어이다. ‘주책이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두루뭇술하다’, ‘두리뭇실하다’ 모두 표준어이다. 다만 ‘두루뭇실’은 표준어가 아니다. ‘허드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하여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넙쿨’, ‘덩굴’만 표준어이다. ‘덩쿨’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눈두덩이’, ‘눈두덩’ 모두 표준어이다.

‘놀이감’은 ‘놀이+감’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두 단어가 모두 고유어이다. 그리고 발음도 [놀이감 / 놀인감] 으로 된소리로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장난감 -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놀이감 -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② ‘윗어른’은 위, 아래 대립이 없으므로 ‘윗어른’으로 적는다. 위, 아래 대립이 있는 경우만 ‘윗니’, ‘아랫니’로 ‘윗’으로 적는다. 위, 아래 대립이 있더라도 거센소리나 된소리 앞에서는 ‘위쪽’, ‘위층’처럼 ‘위’로 적는다.

‘탄지’와 ‘탄죽’ 모두 표준어이다. (올해 추가)

└탄죽 -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탄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탄지 -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③ ‘계면쩍다’, ‘검연쩍다’ 모두 표준어이다. ‘멋쩍다’와 마찬가지로 [쩍]으로 소리나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지리하다’는 ‘지루하다’의 잘못된 표기이다. ‘지루하다’가 표준어이다.

‘빠치다’와 ‘빠지다’ 모두 표준어이다. (올해 추가)

2.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① 보기 ② 낮설 ③ 낮추다 ④ 꽃답다

[정답] ②

[해설] ‘낮설’은 ‘낮설다’(형용사)에 명사형 어미 ‘-ㅅ’이 결합한 명사형이다.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보다’(동사)에 명사 파생 접사 ‘-기’가 결합하여 파생 명사가 되었고,
 ④ ‘꽃답다’는 ‘꽃’(명사)에 ‘-답다’라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가 되었다.
 ③ ‘낮추다’는 ‘낮다’(형용사)에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었다. 사동사가 되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된다. (예문 : 책상의 높이가 낮다. - 책상의 높이를 낮추다.)

3.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XAY → XBY(대치)

㉡ XAY → XØY(탈락)

㉢ XØ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보기>

술+하고 → [술하고] → [소타고]

(가)

(나)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해설] ‘술하고’가 [술하고]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ㅌ’이 ‘ㄷ’으로 바뀌는 대치(교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사소리 ‘ㄷ’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소리나는 것은 자음축약(거센소리 되기)이다.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것불은 아니 쪼겠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정답] ①

[해설] ‘-ㄴ망정’은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ㄴ지라도’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붙여 쓴다.

③ ‘대신(代身)’은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품사는 명사이다. 따라서 ‘예쁜 대신’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말’로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들을지’로 붙여 쓴다.

‘-지’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띄어 쓴다. (예문 :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5.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 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정답] ②

[해설] 국어의 형태적 특징이란 단어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가변어라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국어의 문장 구조상의 특징이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 ②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③ 쇼파 - 씽크대 - 바디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 ④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팸플릿

[정답] ④

[오답 풀이] ‘팸플릿’, ‘리더쉽’, ‘소시지’, ‘소파’, ‘보디로션’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숫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정답] ③

[오답 풀이] ① ‘열두째’는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를, ‘열둘째’는 세어서 열두 개째가 됨을 뜻하는 말이다. (예문 : 이 줄 열두째에 앉은 애가 내 친구 순이야. / 이것이 오늘 채점하는 열둘째 답안지이다.) 따라서 ①번은 키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열두째’로 써야 한다.

②번은 ‘떨어먹는’을 ‘털어먹는’으로 고쳐야 한다.

④ ‘수평아리’로 고쳐야 한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숫양, 숫염소, 숫쥐’만 예외이다. 그리고 거센소리로 소리나면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 수캐, 암탉)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① 상실 : 喪失 ② 성장 : 盛裝 ③ 이상 : 異狀 ④ 해동 : 解冬

[정답] ①

[해설] 상실 (喪 : 잃을 상 / 失 : 잃을 실)

[오답 풀이] 성장(成長) 이상(異常) 해동(解 : 풀다 凍 : 얼다)

9.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뚱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이 찢기어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앞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뿔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해설] <보기>는 어느 마을을 풍경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 ②번도 식물의 잎이 자라는 모습을 묘사했다.

[오답 풀이]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있는 행동을 서술한 ‘서사’이다.
- ③ 사람 접대를 글짓기에 비유했다. ‘비유’ 또는 ‘유추’
- ④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인과’

10.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 |
|---------------------|---------------------|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ㄴ - ㄹ - ㅁ - ㄱ - ㄷ |
| ③ ㄴ - ㅁ - ㄱ - ㄷ - ㄹ | ④ ㅁ - ㄹ - ㄱ - ㄷ - ㄴ |

[정답] ③

[해설] ㄴ - 도입 (화제인 낙관적 전망 제시)

ㅁ - 문제 제기 (낙관적 전망이 틀림)

ㄱ - 예시 (자연 환경의 예)

ㄷ - 예시 (자연 환경외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예)

ㄹ - 주지 (낙관적 전망이 위험하다는 결론)

11.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 ① 원인 - 결과 ② 보편 - 특수 ③ 일반 - 사례 ④ 주장 - 근거

[정답] ①

[해설] 접속어와 지시어를 기준으로 독해하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인간은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약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뒷부분은 ‘거리가 확보되면 인간은 소외감, 무력감 등을 느낀다.’ 다시 ‘이와 같이’ 뒷부분은 ‘이러한 소외감,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 도피’를 감행한다.’ 따라서 ‘원인 - 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다.

12.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② 염상섭의 『두 파산』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정답] ④

[해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나병환자들의 거주지인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9급 스파르타지옥훈련 국·영·史300캠프

이제는 필수과목 지옥훈련!

1년 안에 합격을 원하는가?

합격의 관건! 철저한 필수과목 우선학습!

필수과목 300점을 목표로 지옥훈련 시작!

13. 다음 밑줄 친 ㉠~㉣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뽕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뽕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문 저승으로 떠나는 뽕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뽕락카노 뽕락카노

㉢ 씩어서 동아뽕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 인연은 갈뽕을 건너는 바람

- 뽕목월, 이별가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은 인연을 바람에 뽕대고 있다. ㉠에서 목소리가 바람에 불려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에서는 인연이 바람을 타고 건너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구절은 화자와 죽은 아우의 단절감이 느껴지는데 비해 ㉣은 아우와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관조적, 상징적, 전통적'

심상 : 시각적, 청각적 심상

표현 : 반복법, 방언의 사용에 의한 소박한 정감의 표출

어조 :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어조

구성 : 반복과 변조를 통한 감정과 의미의 점층적 전개

주제 :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정감

특 징

- ①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여 소박한 정감의 표현
- ② 반복과 점층의 방법을 통해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심화를 드러냄
- ③ 되풀이되는 질문 속에 이별의 정한을 드러냄.

전문 시구 풀이

- ① 뽕락카노, 저편 ~ 바람에 날려서 : 죽은 이와 화자, 저승과 이승, 죽음과 삶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표현한 부분이다. 저편 강기슭(피안, 저승)에 있는 '너'가 화자를 향해 무슨 말을 하지만, 그 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1연의 내용이다. 2연은 화자 자신의 목소리 또한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말 뿐,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켜어서 동아 뽕줄은 ~ 갈뽕을 건너는 바람 : 이승에서 함께 누리던 끈끈한 인연이 다해 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화자와 그의 가까운 사람은 이승의 인연이 다함

을 보고, '하직을 말자'는 다짐으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하지만, 그 가까운 인연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결국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니 흰 옷자라기만 펴려거리고 : '너'라고 불리고 있는 이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오냐, 오냐, 오냐 /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해 버린 운명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부분. 화자는 4연에서 '하직을 말자'라는 다짐으로 운명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반면, 6연에 이르러서는 '오냐, 오냐, 오냐.'라는 수긍의 표현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만나자는 소망을 통해 사별의 아픔을 이겨 내려 하고 있다.

⑤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6연에 나타난, 운명에 대한 긍정의 자세가 더 깊은 체념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이승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저승에서라도 만나자는 소망을 가져 보지만, 이승에서의 인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금, 그 재회를 어떻게 확신하겠느냐는 뜻이다.

⑥ 뒤편 강기슭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그리운 이와와의 사별을 받아들이는 수긍의 자세와,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체념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승과 저승에 따로 서 있는 두 사람의 말이 서로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상황은 작품의 1~2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냐, 오냐, 오냐'라는 수긍의 표현을 이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체념적인 순응을 나타낸 것이다.

14.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방안에 헛는 촛불 놀과 이별 ㅎ엿관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느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냥ㅎ여 줌 못 드러 ㅎ노라

② ㅎ 손에 막디 잡고 또 ㅎ 손에 가식 쥐고 / 늙는 길은 가

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디로 칠엿튼이 / 백발이 제 묻저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③ 이화우 ㅎ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ㅎ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날 싱각느가 /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ㅎ노매

④ ㅁ을 사름들아 올ㅎ 일 ㅎ자스라 / 사름이 되어 나서 올티웃

못ㅎ면 / ㅁ쇼를 갓 곳갈 식워 밥머기나 다르랴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시조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표현하였다. 작가(이개)와 창작 배경을 보면 단종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시험에서는 작가에 대한 표기가 없으므로 ‘연정가(사랑노래)’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③번도 계랑의 임과 이별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연정가’이다.

[오답 풀이]

- ①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감을 노래한 이조년의 다정가(多情歌)
- ② 늙음을 막아 보려는 인간의 마음을 노래한 우탁의 탄로가
- ④ 옳은 일을 하며 살자는 교훈을 노래한 정철의 훈민가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ㄴ, ㄹ, ㅈ, ㅊ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ㄱ, ㄷ, ㅁ, ㅂ, ㅅ, ㅈ 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 ㅈ, ㅂ, ㅈ, ㅈ, ㅈ, ㅈ, ㅈ 등도 만들어 썼다.

- ① 象形 ② 加畫 ③ 竝書 ④ 連書

[정답] ③

[해설] <보기>의 설명은 자음을 나란히 써서 만든 병서자에 대한 설명이다. ‘ㄱ, ㄷ’ 등과 같이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은 ‘각자병서’이고, ‘ㅅ, ㅈ’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상형’은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ㅁ, ㄹ, ㅇ’이고 ② ‘가획’은 상형자에 획을 더한 ‘ㅋ, ㆁ, ㆁ, ㅂ, ㅈ, ㅈ, ㅈ, ㅈ’이고, ④ ‘연서’는 순음(입술소리)에 ㅇ을 이어 쓴 ‘몽, 봉, 뽕, 풍’이다.

16.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
-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떴다.
-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정답] ④

[해설] <보기>의 ‘타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④번은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의 뜻이다. 여기서 ‘타다’는 ‘이용하다’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다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②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③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 나머지는 모두 의미상 연관성이 없고 소리만 같은 동음이의어이다.

17.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 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 ① 錦上添花 ② 烏飛梨落 ③ 苦盡甘來 ④ 一舉兩得

[정답] ②

[해설] 오비이락(烏飛梨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일석이조, 일거이득)

18.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道聽塗說 ② 心心相印
 ③ 拈華微笑 ④ 以心傳心

[정답] ①

[해설] 도청도설(道聽塗說) :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말이나 글씨로는 전하지 못할 것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②心心相印(심심상인) : 마음과 마음에 서로를 새김
 ③拈華微笑(염화미소) : 이심전심의 경지를 이룸
 ④以心傳心(이심전심)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不立文字(불립문자) : 문자나 말로써 도를 전하지 아니함
 敎外別傳(교외별전) : 석가 일대의 설교 외에 석가가 마음으로 따로 깊은 뜻을 전함.

